

**수입차, 어떻게 골라야 할까?** 기생충알이 검출된 김치와 표백제가 포함된 짬뽕 등 중국산 수입식품에 비상이 걸렸다. 차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이 지난 9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茶)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분검사에서 다량의 납과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입차를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 식품위생법 한글표시 확인을



수입차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과 주요성분, 수입원 등이 우리말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은 인사동 한 차판매점에 쌓여있는 중국산 보이차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납·농약 파동, 중국산 차 구입요령

#### 국내 유통 중국산 납·농약 성분 초과 허술한 관리감시 등 문제점 드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검사한 중국차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는 수입차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시 체제를 드러내 보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검사 결과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차 제품 30종 중 중국산 7개 제품에서 납과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23.4배인 117.22ppm이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살충제인 비페스린(Bifenthrin)이 잔류허용기준(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납은 만성적으로 중독될 경우 식욕부진과 두통 등을, 비페스린은 호흡곤란이나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산 국화차와 우롱차, 대잎차, 야생고정차 등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Cd)이 0.05~0.47ppm 검출됐고,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국산 가루녹차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할렌프록스(Halfenprox)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엔도실판(Endosulfan)과 싸이페메트린(Cypermethrin)이 검출됐으나, 이 성분들에 대한 차의 잔류허용기준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차를 수거해 검사하고 불법제품 판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신고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하고 중금속 중 기준이 설정된 납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카드뮴, 비소, 수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차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제품명·업소명이나 소재지·내용량 등을 표시하

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입산 차의 경우 전체 30종 중 60%(18종)가 한글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쿼터 초과 수입량에 대해 부과되는 500%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차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업소명·소재지 등 표시 없으면 의심 등록업체 이용, 직접 상품 확인해야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차를 구입할 경우 제품명과 식품유형,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되었거나 포장지에 인쇄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자와 유통기한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차는 유통기한이 2년을 넘지 않는데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판매되지 않은 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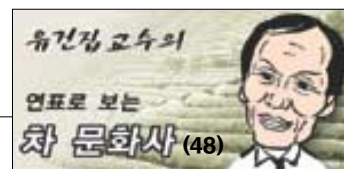
또한 한글표시와 실제 내용물 종류, 양이 일치하지는 여부를 살펴보고, 반쯤 및 교환장소가 명기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게 등에서 구입할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 차의 냄새를 맡아 봐 습기가 있거나 곰팡이가 피지 않았는지, 목은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차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향이 거의 나지 않는다면 오래된 차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으로 등록된 차 수입업체를 이용하고, 길거리나 간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차는 가급적 구입을 피한다.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과)는 "입소문이나 차 수입상의 말만 믿고 수입차를 구입하기 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차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 품질변별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mailto:snoopy@buddhapia.com)

조선시대



### '동다송' 우리차 장점·정신 담은 중요 다서 차생활에 부용당 죽서당 금원당 등 등장

한재(寒齋)의 드높은 차 정신이 펼쳐진 후 3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다할 다서 하나 없는 실정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산이 썼다는 <동다기>가 나왔으나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소실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만보전서>에 나오는 <다록>을 옮겨 적은 <다신전>이 나왔으니, 차의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 보급된 셈이다. 이어서 초의 선사의 <동다송>은 대부분 기존 다서의 중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지만 우리 차의 장점과 올바른 차 정신에 관한 것도 실었다.

한편 새로운 정신과 화풍이 펼쳐지면서 여류와 서얼 및 평민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차 생활에는 부용당, 죽서당, 금원당 등이 등장한다.

중국의 차의 생산, 수출이 주요 정책이었으나 외교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은 비로소 옥로(玉露)가 개발되었다.

- ① 진작의궤(進爵儀軌): 차를 올리는 다정(茶亭)이 주정(酒亭) 옆에 설치되고, 연회 중간에 차를 올리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각색다식(各色茶食)이며 삼색다식도 들어 있다.
- ② 금령(錦令) 박영보(朴永輔)가 쓴 글이다. 그는 차를 좋아해서 신위(申緯) 신현(申顯) 초의 등과 교류했다.
- ③ 산차(散茶)에 관한 기초적 내용이므로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보아둘 책이다.
- ④ 최한기가 쓴 책으로 차와 차탕

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⑤ <부용집>에서 200여수가 실렸다고 시고 몇 수 있다.

⑥ 금릉(강진의 옛 지명)의 월출산에서 낚던 차로 다산이 가르친 제다법으로 만들었으며 가로 6cm, 세로 15cm의 종이 봉투에 붉은 상표를 찍었다.

⑦ 해거도인 홍현주의 청으로 만든 송(頌)이다. 끝에 우리 차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⑧ 금원당 김씨(1817~?) : 운초, 죽서 등 여류문인들과 시문을 즐겼으며 다시가 전한다.

⑨ 임재매(1821~1868): 대만 차인으로 문인들의 차생활이 좀더 활기차도록 유도했다.

⑩ 완복(阮福)이 쓴 것으로 보이차에 관한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⑪ 손동원(孫同元)이 쓴 글로 하권에 자신이 담배와 술을 끊고 차를 좋아하는데 응정차가 색향미에서 뛰어나다고 썼다.

⑫ 여간선: 청대 다상(茶商)으로 차차 제법으로 차를 만들었다. 기문(奇門)을 중심으로 크게 성공해 기문총차의 명성을 얻었다.

⑬ 주문차: 청대 다상으로 성격이 곧아 20여 년간 노력했으나 많은 손해를 보았다.

⑭ 황봉기(黃本驥)의 저술로 호남의 세곡 차 양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종을 기록했다.

⑮ 매다옹(黃茶翁) 고유외(高遊外)의 차생활을 비평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Rabou)

한국	중국	일본
1827 진작의궤에 차를 올림 ①	1821 임점매(林占梅)의 출생 ①	1822 매다옹(매다옹)의 다도보
1828 진작정리의궤	1825 보이차기(普洱茶記) ②	1824 전중학옹(田中鶴翁)
1830 남차병서(南茶并序) ②	1828 차의 밀무역 금지	1826 뇌산선 ④
<다신전(茶神傳)> ③	1832 차겨루기(북간 지방)	
<농정회요(農政會要)> ④	1833 <영가견문록(永嘉見聞錄)> ⑤	
1831 일지암 지음	⑥ 인도와 기술제후	강호시대
⑦ 부용당 김씨(芙蓉堂 金氏) ⑥	1838 임축서의 흥차대신	
⑧ 월산차(月山茶) ⑥	⑨ 여간선(餘幹仙), 주문차(朱文燭) ⑩	1836 옥로차 개발
1836 다산의 타계		⑪ 차의 외국 수출 증대
1837 <동다송(東茶頌)> 완성 ⑦		
⑫ 금원당 김씨(錦園堂 金氏) ⑧	1845 <호남방물지(湖南方物志)> ⑮	
1840 김정희의 제주 유배		

### 제2회 차 품평회, 경남 하동서

제2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가 11월 6일 오후 1시 경남 하동군 녹차체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차 품평회 주최로, 차 품평회 명인문화재단, 한국차문화협회, 한국다도협회, 한국명선차인회, 경상북도신기술포장연구센터가 주최한다. 대한민국 차 품평회 주최위원장 여연 스님

(일지암 암주)는 "품평대회를 통해 과학적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소비활성화 및 차 재배·생산·유통 등 국내 차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회에의의를 밝혔다. 품평대회 이외에 다산(茶禪) 영화제, 차 시연 등도 마련된다.

대한민국 차 품평회는 지난해 7월 1회 대회가 열려 봉황다원의 제작원장이 우수품 질상에 선정됐다. (054)977-1092

### 강진 다산초당, 초가로 복원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과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차 인연이 맺어진 전남 강진군 도암면 다산초당(茶山草堂, 사적 107호)이 초가(草家)로 복원된다. 다산초당은 지난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에 의해 기와집으로 복원됐었다. 강진군은 최근 '수많은 방문객이 초가가 아닌 기와집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문화재청과 협의, 복원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초의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1812년)'에는 다산초당이 흙으로 나지막하게 쌓아 올린 담 안에 연못 2개와 초가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강진군은 2007년말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현재의 건물은 해체한 뒤 초당 입구 굴뚝마루를 옮겨진다.

# 瑞榮普洱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도보이 · 진도어메 · 칠판어메 · 오룡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어메

외 40여가지의 차

최정모이, 개명기념 기념어메 10만원 한정판매

보이차 전문점, 선별수가, 최정모이, 온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茶와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어낸

## 차茶와선禪

###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발간 '다도, 장기 구독자에게는 상·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차茶와선禪 그리고 화두話頭